

“호서지역 공렬토기의 출현과 전개과정”에 대한 토론문

허의행(한국고고환경연구소)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호서지역의 청동기시대 문화는 전기의 공렬토기 문양을 기반으로 하는 역삼동유형과 이중구연과 단사선문의 문양을 기반으로 하는 가락동유형, 돌대문토기 문양을 기반으로 하는 미사리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필 수 있으며, 최근에는 호서의 동북쪽(충북지역) 지역을 중심으로 조동리유형의 설정도 제기되었다. 물론 그 이후 시기에는 송국리유형이 호서지역에 자리하면서 전기의 복잡한 취락유형은 어느 정도 통일되어 간다.

이러한 다양한 취락유형의 존재로 인해 호서지역은 취락유형별 다양한 연구성과를 도출해 내고 있으며, 최근에는 취락유형 상호간 관계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취락유형의 설정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가 여전하여 이들의 상호관계에 대한 진전된 연구성과는 미진한 편이다. 그러한 이유 중의 하나로 동일한 물질자료를 어느 취락유형에 포함하느냐에 따른 논의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금번 학술대회에서 논의 되는 내용이 앞으로 청동기시대 취락유형의 정리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발표자는 토론자와 같이 호서지역 내에서 청동기시대 취락유형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 그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본 발표문이 작성되었다. 토론자가 파악한 바로는 본 발표문은 호서지역 내 공렬토기의 출현에 대해 그간의 연구성과를 정리하였고 쟁점과 관련한 몇가지 의견 등을 피력하였다. 견해를 같이하는 부분도 있지만 달리하는 부분과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 발표자에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공렬토기를 전기 역삼동유형 취락의 표지적인 문화요소의 하나로 보고 계시는데, 토론자가 알기로는 가락동유형의 취락에도 전체의 양상은 아니지만 일부 공렬토기의 존재가 알려지고 있고, 후기의 취락에서도 이들의 존재가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역삼동유형 취락만의 고유의 물질 문화요소로 인정할 수 없을 수도 있는데, 타 취락유형에서 확인되는 공렬토기의 모습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 ‘태생적으로 내재되어 있다’는 견해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토론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두 번째로 토론자가 파악한 바로는 호서지역 공렬토기의 기원을 역삼동·흔암리유형 취락과 논하면서 가락동유형과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유입된 외래문화로 보면서(11쪽) 압록강, 두만강 대동강 및 심지어는 신석기문화와도 연결되는 복잡한 양상으로 이해하는 듯하다(12쪽). 호서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면 전기 청동기시대 취락의 형성은 자생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는 토론자도 유사한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인접한 서울경기 및 강원지역의 청동기시대 전기취락의 물질자료의 모습이 호서지역 역삼동유형과 비슷한 점이 많다면, 주변지역과 비교해서 접



근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은데 굳이 이보다 먼 거리인 한반도 북쪽 지역과 비교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호서지역 인근의 역삼동취락과의 관계는 어떠했을 것인지에 대해 간략히 언급해 주셨으면 한다. 관련하여 역삼동유형의 기원과 계통을 X자문과 사격자문을 통해 살펴보면서 요동지역과 관련성을 살펴보려 하고 있다. 인근지역(서울, 경기, 강원, 충북 등)에서 이와 유사한 문양의 존재는 없는 것인지도 알고 싶다.

세 번째로 강원지역의 전기 청동기시대 취락을 살펴보면서 이 지역에서는 이른 시기부터 가락동과 역삼동·흔암리유형이 복합되어 있음을 언급하였고, 취락유형의 호서지역 내 확산과정에서 두 유형으로 갈라진 것으로 파악하였다. 전형적인 전파론적 시각의 연구성과로 보여지는데, 만일 그러하다면 두 유형의 전파와 확산의 루트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그 과정은 단선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양방향 또는 여러 방향의 확산으로 진행된 것인지, 그렇다면 호서지역에서는 그 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디일 것인지가 궁금하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발표문 내용을 보면, 호서지역 전기 청동기시대 역삼동유형 유물은 기원과 계통이 한반도의 서북쪽과 요동반도 지역이며 취락은 강원 동부지역에서 호서지역으로 이동 및 확산되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고고 물질자료의 투 트랙으로의 형성, 즉 유구를 포함한 취락유형은 호서지역에 먼저 등장하고, 유물 등의 문화요소는 다양한 지역에서 호서지역으로 유입되면서, 이들이 결합하여 호서지역 내 전기 취락문화를 이루어 낸 것인지가 궁금하다.